세미나 녹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오리 사양관리

권 주 옥
(신촌사료 이사)

본고는 지난 2월 24일 영암 월출산 관광호텔에서 (주)신촌사료가 주최한 오리사양관리 세미나에서 동사 권주옥이사가 발표한 「오리사양관리」 동사 관리수의사로 있는 강철과장이 발표한 「호흡기구조와 오리폐혈증과의 관계」 내용을 발췌 수록한 것이다. <편집자주>

지난 22년간 사료업계에 근무하면서 많은 축산농가의 사육현장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으며 특히 오리는 개인적으로도 깊은 관심이 있던 축종이었습니다.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축산업이 시작된 이래 사육농가의 가장 큰 관심사항의 하나이며 지금도 생산현장에서 또는 연구기관에서 행하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오리사육농가의 생산현장을 돌아보면서 사양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아왔으며 오리사육농가에서 오리특성을 알고 이에 기초한 세심한 사양관리가 이뤄진다면 지금보다 생산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에서 오리는 이론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현장에서 오리 사양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같은 이론적 특성을 어떻게 실행에 옮겨 양축농가 여러분 농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온도관리

사육현장에서 적정한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은 그 농장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아주 밀접한 요인이 됩니다.

즉 온도가 너무 높다거나 낮은 경우

폐사율이 높아지고 오리가 위축되어 생산성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표1>은 오리의 일령별 적정온도를 나타낸 그래프 입니다.

즉 입추당일 축사내 온도를 충분히 가온하여 육추사의 온도를 37℃로 유지하고 다음날부터는 매일 1.5℃ 낮춰주어 18일령 이후는 상온인 18℃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온도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1>은 육추사내 새끼오리의 분포상태와 온도와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에서 ①은 육추사내 새끼오리가 골고루 퍼져 있는 그림으로 육추사내 온도가 적정 상태를 유지하여 매우 적합한 온도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 ②는 육추사내 새끼오리들이 축사 밖 주변으로 몰려있는 그림으로 육추사내 온도가 높은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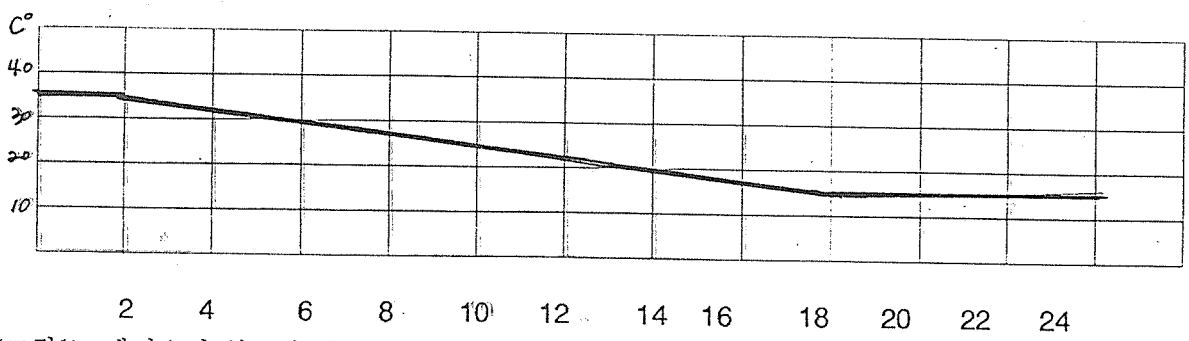
그림 ③은 새끼오리들이 육추기 주변 즉 축사 가운데로 몰려있는 상태로 육추사의 온도가 낮은 경우 입니다.

그림 ④는 육추사내 새끼오리가 양방향으로 몰려있는 상태로 이는 외부에서 샛바람이 들어오고 있는 경우로 새끼오리 건강에 매우 않좋은 상태 입니다. 즉 샛바람은 감기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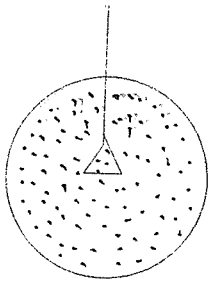
1. 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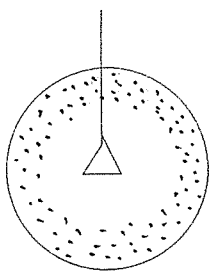
적정온도를 균일하게 유지, 입추전 충분한 가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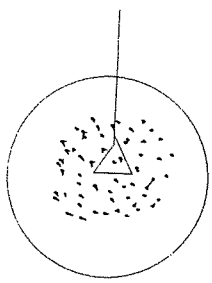
<표1> 일령별 적정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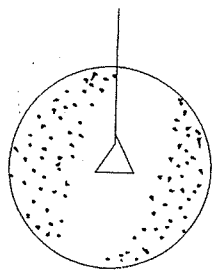


<그림1> 새끼오리 분포와 온도관계


(적정)


(온도가 높은 상태)


(온도가 낮은 상태)


(샛바람이 들어오는 상태)

2. 습도관리

사육현장에서 온도관리는 신경쓰나 습도관리는 다소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습도를 유지하는 것은 생산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육추시 적정한 습도는 1주령에서는 70-75%이고 2주령에서는 60-65%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은 습도관리 입니다.

습도가 높은 경우 발생되는 문제는 크게 세가지 입니다. 즉 습도가 높은 경우 체온조절이 어렵고 깔짚이 습해지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이로인해 세균곰팡이 증식에 따른 질병감염 위험성이 높아 지는 문제이며 암모니아 가스 발생에 의한 호흡기 질병이나 약추가 발생되는 원인이 됩니다.

또 습도가 높은 경우 서로 털을 뽑아 먹는 카니발니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습도가 낮은 경우 호흡기가 건조해져 호흡기 질병 감염위험이 높아지며 음수량 증가에 따른 설사 위험이 높아지고 이는 육성율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3. 환기관리

대부분의 오리사육농가들은 하우스 축사에서 오리를 사육하고 축사내 지붕이 없는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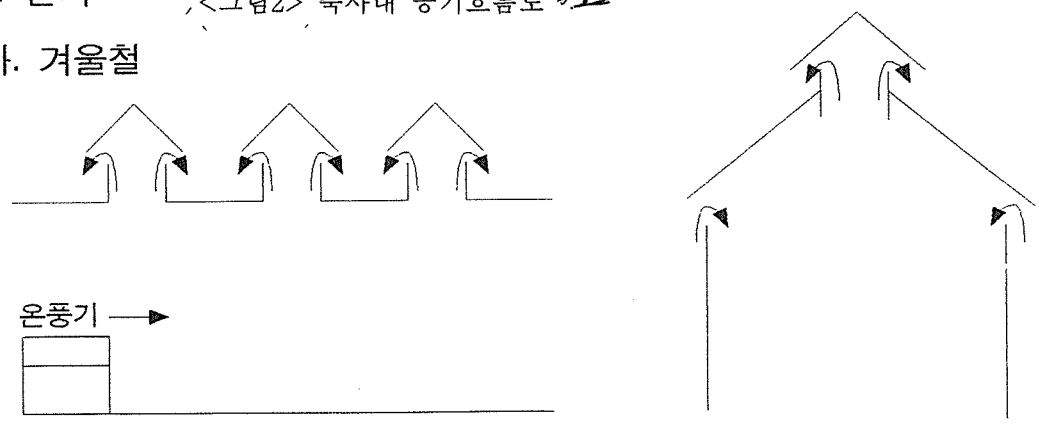
이같은 축사환경에서 사육되는 오리의 대부분은 여름철에는 축사양옆을 올려주어 환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겨울철에는 환기불량에 따른 질병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림2>는 축사내 공기흐름도를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환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사 지붕에 반드시 일정한 간격으로 환기창을 내 주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겨울철 온도와 습도 그리고 환기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3. 환기 <그림2> 축사내 공기흐름도

가. 겨울철



환기창을 그림과 같이 하고 겨울철에는 바닥에 온풍기를 설치하고 여름철에는 바닥가까이에 선풍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가 안되면 축사내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 가스에 의한 질병감염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축사내 암모니아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축사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가스냄새가 난다면 이는 암모니아 가스농도가 10-20ppM정도이며 사람눈이 약간 매체한 느낌이면 20-50ppM, 오리눈에 염증이 생기고 감기는 정도라면 60-70ppM으로 이 상태가 오랜동안 지속되면 오리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어 질병감영에 의한 폐사율과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4. 사육밀도

오리의 사육밀도는 크게 육추시와 분동시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추실내 새끼오리의 평당 입추수수는 평당 33수이며 10월에서 3월까지는 평당 40수까지 높여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분동후는 평당 10-16수 수용이 가능하며 축사환경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환경관리가 잘되고 있는 축사라면 평당 13-14수를 수용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동후 분리사육에 있어 가능한 500수 단위로 분리사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축사를 충분히 소유한 농가라면 한 축사내에서 육추하여 성장 단계별로 축사의 평수를 늘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가 용이하고 이동거리를 제한하여 사료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5. 점등관리

축사내 전등의 밝기는 5-15Lux이며 이는 축사내에서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밝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등은 축사내에 골고루 배열하는 것이 좋으며 수시로 청소하여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전시 스트레스를 줄이고 놀라서 한테몰려 압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4일에 한 번 1시간이내에서 점등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사료급이

가) 1일령

바닥에 지대를 깔고 어린오리 사료를 물에 개어 급여하는 것이 좋다. 물에 개어 주는 것은 2-3일령까지 지속하며 물과 사료의 농도는 사료를 손으로 쥐었다가 놓았을 때 뭉쳤다가 풀어지는 정도이다.

나) 2-5일령

어린오리 크럼블 사료를 급여하고 3일령부터는 마른사료를 급여하며 1천수 기준으로 사료 5포대를 급여하면

무리가 없다.

다) 6-18일령

어린오리 크럼블 사료에서 어린오리 펠렛으로 대체하여 급여한다.

라) 19일령이후

어린오리 사료에서 육용오리 펫렛으로 대체급여한다.

마) 사료급이기의 높이

사료급이기의 높이는 항상 오리의 어깨 높이에 설치하여 사료허실이나 급이가 용이하도록 한다. 이는 오리의 사료습성이 쪼아먹는 것이 아니라 밑부리를 이용하여 먹기 때문이다.

바) 사료 급이기 수

사료급이기는 가능한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보통 200수당 급이기의 크기를 150cm×50cm×60cm로하여 1개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사료급이기와 물통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오리는 태어나서 출하때 체중이 무려 75배 성장하는 가축이며 축사내 오리의 활동반경은 3-6m이내에서 이동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료급이기와 물통을 적정하게 설치하는 것은 급이를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다시말하면 이같은 여건을 갖춘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간에는 출하시 출하일령 사료효율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사) 사료보관

바닥이 습하지 않고 바닥에서 10cm 띄워서 통풍이 잘되도록하고 제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급여한다.

7. 급수관리

가) 항상 신선한 물이 급이되도록 하고 급수기는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급수기는 주1회 음수용 소독약을 이용하여 소독한다.

다) 급수기의 높이는 항상 오리어깨 높이에서 먹을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로 조정하여 준다.

라) 급수기의 설치는 오리 300수당 1기를 설치하며 목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분동관리

가) 분동일령

축사여건에 따라 14-18일령 사이에 한다.

나) 분동시간

여름철의 경우는 새벽에서 오전중에 하는 것이 좋고 겨울철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사이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다) 분동전 조치사항

분동 1일 전에 스트레스 방지를 위한 항생 제제를 사료 및 음수에 첨가하여 급여한다.

라) 분동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천천히 분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바닥관리

깔짚은 주로 왕겨를 사용나 여건에 따라서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깔짚은 젖은 것이나 곰팡이가 핀 것 먼지가 많은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

10. 입추관리

가) 실내온도는 35℃이상이어야 한다.
나) 첫물급여
입추후 첫물급여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으며 영양제제와 설탕물을 급여하는 것이 좋다. 설탕물의 농도는 물 100ℓ 설탕 8Kg 정도이다.
다) 첫 사료급여
물을 먹인후 30분후에 급여하며 사료포대를 깔고 물에 개어서 주는 것이 좋다.
라) 동물피해 예방
쥐 고양이 개 족제비 너구리 등 짐승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육추사 및 축사내부를 철저히 차단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11. 결언

지금까지 육용오리 사양관리에 대한 주요한 체크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리를 처음으로 사육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육농가들은 이같은 사양관리 원칙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농가에서 이같은 원칙을 저버리고 경험에 의한 사육에 의존하면서 원칙을 준수하지 않코 있습니다.
이는 사육농가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가장큰 원인이 된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양관리를 잘하는 농가와 그렇지 못한 농가간에는 비교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나 분명한 소득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양축농가 여러분께서는 세심한 사양관리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저희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양축농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오늘의 세미나가 참여하신 양축농가의 사양관리에서 한가지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